광주·전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 실시

초등학생 40여명 문화체험 및 역사적 장소 탐방

오늘부터 3일간 중학생…"화합·차이 이해하길"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광주·전남 초등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운영했다. 17일부터 3일간 운영되는 교류 캠프에는 광주·전남 중학생 40여 명이 참여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이번 캠프는 광주 전남 지역 학생들이 문화체험을 통해 친교 활동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며 광주·전남의 역사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프에서 초등학생들은 순천과 여수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케이블카체험, 해양레일바이크 등을 체험하고 5·18민주묘역과 광주학생독립기념관 등 현대사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했다.

시교육청 오경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가 화합하며 서로의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The 넓은 세계를 향해 The 밝은 미래를 위해"

영암교육지원청, 해외역사문화탐방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나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삼호서중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2019. 영암 중학생 World&Future 프로젝트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실시했다.

2019. 영암 중학생 World&Future 프로젝트 해외역사문화탐방은 영암의 중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획 프로젝트로, 총 7단으로 운영되며, 왕인박사의 자랑스러운 후손인 영암 아이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고자 영암군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영암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총 14회의 전문가 컨설팅 및 담당자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위원이 주축이 되는 TF팀을 운영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프로젝트 내용을 반영·운영하여, 프로젝트가 1회성 탐방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탐방 전 실시되는 사전 안전교육도 학교 주관, 지원청 주관으로 반복 실시하여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는 점 등은 다른 해외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평이다.

영암교육지원청 나임 교육장은 "왕인의 후손인 우리 영암의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성숙한 미래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영암의 아이들이 글로벌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 지역 영암의 자랑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251개교로 확대

142개교서 109교 추가, 학폭 예방과 교권보호 활동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1학교 1고문 변호사제'를 기존 142교에서 251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학교 1고문 변호사제' 운영학교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다.

고문변호사는 해당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과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보호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진로 특강 등 다양한 지원도 펼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학교폭력예방 등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 확대운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육청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다 같이 행복한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체결해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한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했다. 2017년 6월부터는 고문 변호사를 신청한 전체 학교인 103개교로 운영범위를 확대했다.

이후 지원 학교는 지속 증가해 올해 6월초까지 142개교가 됐다. 교육청과 변호사회는 최근 합의를 통해 109개 학교를 확대해 올해 6월14일부터 총 251개 학교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시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수는 318개교다.

조인호 기자

보성교육청, 학교혁신지원단 협의회 실시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6월 14일, 봇재에서 전남보성혁신교육지구지원단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지원단 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교육 정책과 학교조직의 이해 등 거시적 측면에서부터 교실 수업 혁신의 미시적 측면까지 폭넓은 리더십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학교혁신지원단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김형규 전남교육청 혁신학교팀 파견교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학교 구성원이 학교 내에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연구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실행연수의 시간을 가졌다. 학교혁신팀에서는 학교 스스로 학교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일회성, 결과전달식 컨설팅을 최소화하고, 학교별 해결과제를 실천하는 실행연수로 전환하고 있다.

백남근 교육장은 "보성교육 혁신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지원단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학교혁신이라는 어렵고 험한 길도 여럿이 함께 가면 즐겁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 "힘내세요, 선생님"

교직 스트레스 해소 위한 힐링 연수 교원 사기 진작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19년 상반기 교원 마음치유 직무연수를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새 힘을 충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운영되는 교원 마음치유 연수는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기획하였으며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6월 14일에는 초등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나은정 변호사가 교권보호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고, 교사 자기성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갈등관계 해소전략(강사 황수영),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표상(강사 김미란), 효과적인 학부모 상담(강사 장안나)을 주제로 운영되었다.

6월 15일은 힐링 체험을 주제로 나에게 주는 선물(천연비누 만들기 및 만다라 만들기),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힐링 요가, 나만의 커피 레시피(에스프레소/핸드드립), 마음정원 가꾸기(원예치료) 과정을 운영하였다. 모든 연수과정은 학생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가운데 교사로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통해 교사의 일상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다양한 종류의 힐링 체험이 주는 여유와 즐거움이 큰 힘이 되었다며,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이러한 연수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앞으로 진행될 직무연수 과정은 2기(중등) 6월 28일~29일에 중등교사 총60여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교원 마음치유 직무연수 과정을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회복의 힘을 기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직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주변 교사들과 나눔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격려사에서 승영숙 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직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치유를 도와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양하여,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